

Hi!

A NEW

HOME

Hi! A new Home

김아름 김재은 김혜영 미소 박미정
백다래 서승희 알렉산더 루쓰·윤진초
유민혜 이은아 아하콜렉티브 주미영
장입규 장하윤 홍수현

수창청춘맨손

2021

1.15. - 4.30.

---기획 김미련

수창청춘맨손
Suchang Youth Mansion

2021#1

Hi! A NEW HOME

Hi! A NEW HOME

2021수창청춘맨손 기획

Hi! A NEW HOME

2021. 1. 15. - 4. 30.

Hi! A NEW HOME

집은 개인의 철학을 반영하는 공간이자 그 사람만의 세계를 표출하는 장소이다. 집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신적 가치를 갖는다. 집은 개인적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사회가 지닌 가치관의 총집합체이다. “집은 거주를 위한 기계다.”라는 르코르뷔지에의 선언에서 보이는 모더니즘 건축에 투영된 도구주의적 접근과는 다르게 하이데거는 집의 존재론적 실존을 탐색했다. ‘거주함(wohnen)’을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으로 보았고 거주함은 본질적으로 사방(땅, 하늘, 신, 인간의 유기적 관계)을 사물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핌’(schonen)을 통해 세계 안에서 ‘건축(bauen)’하고 ‘사유함’(denken)으로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금 여기, 모든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의 시대에 미래주택 공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환의 시대는 우리에게 SNS로 퍼 날라지는 전 세계의 사건과 그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인간 감정의 유사성을 경험하게 했다. 경제적 활동과 인간의 이동이 멈추자 자연과 대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알람으로 아침을 깨우며 스케줄을 동반하는 우리의 일상은 최첨단의 기술이 이제 새로운 근육운동을 해야 하는 우리의 집을 위해 적용될 것이다. 잠만 자는 숙소를 넘어 우리의 집은 더 많은 세면대와 스마트 변기와 비데, 적외선 감지 출입 시스템, 핸드프리 가정용 장치, 잘 꾸며진 뒤뜰, 현관, 발코, 더 나은 마당 등을 확보해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끌어와 집 내부 풍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집은 안전한 대피소와 병커이며 동시에 일터, 피서지이며 휴양소, 또 배움과 가르침이 공존하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이면서 공적인 개인 활동이 모두 가능한 가변적 공간이 된다. 우리의 삶과 의식, 새로운 문화를 반영하고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본래의 휴식 기능을 넘어 사회생활, 여가활동까지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정주’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전시주제 'Hi! A new Home'은 현실의 상황과 속박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고 있다. 또한 집이라는 주거공간이 단절과 격리가 일상화된 도시에서 인간에게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진 대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통한 신기술에 의해 초연결되는 4차 산업 세계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단초로서의 집, Home에 대한 상상력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새로운 집은 최첨단기술환경을 장착하면서도 자연과 대기를 끌어와 확장하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건축공간이 되며, 하이브리드형의 미래지향적인 A new Home을 가상시나리오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외적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의 장착이 이렇하다면 또 한편으로 인간의 내면으로 깊게 통찰하며 세계의 주체와 객체로서 인간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 사유하며 발견하는 새로운 나, 그리고 그 안의 내면 풍경을 찾아가는 작업과 카오스에서 세상으로 나 있는 창의 시점을 옮기기 세우는 나의 집의 의미도 포괄한다.

전시는 크게 다섯 개의 레이어가 쌓여 미래의 집이 완성되듯이 기존의 기본 기능 위에 덧대진 양상의 '레이어드 홈(layerd Home)'으로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레이어 1은 세계 속에 인간 감정의 유사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고유한 감정의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는 <집의 감정>이다. 홍수현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공간과 빛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감각적 경험이 반영된 공간설치를 하는 작가이다. 오랜 타국 생활을 통해 경계인으로서 느끼는 집에 대한 낯섦과 익숙함에 대한 감정을 교차시켜 빛, 공간, 소리를 이용한 공간설치작품을 선보인다. 'room with a view II'는 7자 나무구조의 공간에 대조되는 2개의 LED 등과 독일 작업실의 사운드를 설치하여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과 정신적 위안으로서의 집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은아 작가의 'Bavardage-5years later'는 작가가 실존하고 있는 공간과 몸의 지각,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재구성하여 싱글 채널 영상으로 보여준다. 장소, 상황, 공기, 냄새, 찰나에 사라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삶의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가져온다. 사적인 전화 통화가 나지막하게 깔리는 비선형적인 영상은 밤이 만들어주는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공간은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데 몰입하게 유도하고 심리적 디아스포라를 보편성으로 끌어올리는 장치가 된다. 여운을 남기는 문학적인 서사의 제목과 함께 '빈집'을 전통적인 회화로 작업하는 김혜영 작가도 있다. 그의 '빈집' 회화연작은 하이데거의 '거주함'의 실존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과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등의 작품은 사방을 사물 안으로 품어 보살핌으로써 '거주함'이 '건축함'과 함께 함에 있어 '사유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상실감을 보여준다. 광목천 위에 아교로 밀칠을 하고 한국화 채색 물감을 매트하게 올린 회화적 표면은 그의 빈집연작의 허허로움을 극대화하는 양식인 듯하다. 김재은 작가는 'House of Emotions', '대화의 문'의 공간설치작품을 통해 기억 속 경험의 장소에서 느꼈던 이중적인 감정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목탄의 드로잉이 그려진 광목천이 중첩되어 회화적인 공간설치가 건물 내부 질감이 표현된 부조(浮彫)적인 구축과 함께 전시공간에 감각적으로 배치된다. 시적인 서정성이 회화적인 설치공간에 잔잔한 듯하면서도 한편 묵직하게 흐른다. 집 구조물 안에 VR 영상을 볼 수 있게 설치

한 서승희 작가의 전시작 'Space out in a room'은 고독과 단절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한다. 격리가 일상화된 도시에서도 최첨단의 기술과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은 쉽게 이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적 공간에 현존하며 몸의 지각으로서 공감됨의 결핍은 1930-40년대 에드워드 호퍼의 회화에서 느껴지는 대공황시대의 메트로폴리스의 우울함과 공허함에서 다른 듯하나 닮아있고, 관계의 두려움과 단절은 더 깊어져 있다.

레이어 2는 <벙커, 일터, 침터, 교육의 집>이다.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거리두기 최적의 장소로서 집을 이야기하는 장하윤 작가는 전시작 '낮과 밤' 연작을 통해 벙커의 집을 모색하고 있다. 타인과의 공적인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있는 공적 공간을 집이라는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과 분리함으로 자신을 회복하고 마주할 수 있게 한다. 회화적 평면과 라이트 부조 설치가 안팎으로 한 쌍을 이룬 설치작업이 작가의 이전 작업과는 다른 실험성이 도드라진다. 공동주택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쉼터(Shelter)로서 집의 포근함은 공간설치작업의 빛을 통해 아련함으로 다가온다. 부부 작가 팀인 알렉산더 루쓰와 윤진초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곰 토템을 통해 바라보는 집과 공간의 의미를 쉼터와 공기 조형물로 가시화한다. 2020년부터 진행되는 '엄마 곰 프로젝트'의 연장에서 가족, 모성을 가정(Home)이라는 개념과 연결하는 한편, 'Bear'의 곰이라는 뜻 외에 견디다, 잉태하다, 출산하다 등의 중층적 의미를 공동작업으로 담아내었다. 특히 'Garden Bear 반지를 낀 정원사'는 수호여신과 같은 포스를 내 품고 있다. 백다래 작가의 'A STRANGER IN THE ROOM'은 오늘 우리의 모습, 불편함, 체념, 익숙함을 영상설치로 보여주며 새로운 집에 대한 공간 탐험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여 세계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자신의 집을 찾기를 희망한다. 검정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모기장 여러 대를 뒤집고 옆으로 세우기도 하며 불안정한 집의 구조를 짓고 그 안에 설치된 퍼포먼스 영상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공간 탐험을 제안한다.

레이어 3은 <초연결 시대의 집>이다. 격리된 일상의 집에서 '클릭'으로 연결되는 너와 나의 클릭 소사이어티(Click Society)에 대한 재치 있는 오토마타(Automata 기계 자동장치) 설치작업 '딸깍이는 사적인 이야기'를 선보이는 박미정 작가가 있다. 그는 언택트시대에 개인의 일상이 격리된 집과 하나가 됨을 20여 개의 기계에 연결된 일상적인 물건과 손의 클릭으로 상징하고 은유한다. 우리는 전자적 네트워크를 두고 마치 우리 자신의 닫힌 일상을 열어줄 대안인 것처럼 초연결이 돌파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매일 가상의 원도 앞에 앉아 클릭만을 무한반복 하는 기계가 되는 듯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정혜리, 김삿별, 박주애, 최지원 작가로 구성된 아하컬렉티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성되는 비물질, OS 시스템 위에 화면으로서의 집을 0mx0mx0m, 즉 '0m³'의 변화하는 새로운 집으로 소개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한다. 특히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과 속도에 집중한다. 0mx0mx0m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심리적 대상이자 가상의 안정을 주는 포맷이며 화면을 온-오프하며 마주하는 새로운 방식의 집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민혜작가는 거주공간에 배치되는 가구들이나 일상적 사물, 고정된 사물들 사이, 사물과 공간에 흐르는 비가시적인 리듬과 소리를 풍경으로 가시화한

다. 전시작 '흰색 위에서'는 24시간 변화하는 수창청춘맨손의 빛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옥상으로 난 문과 베란다 건물의 배색과 공간의 조형성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수석과 백자, 실내거실의 일상 용품으로 고정된 '산'과 흐르는 '강'을 공간에 연출한다. '거산실수' 연작의 새로운 버전인 이 작품은 실외의 대기와 빛의 흐름을 실내로 끌어와 가시화한 것이 포인트이다.

레이어 4는 <하이브리드 홈>이다. 김아름 작가는 'Come out 1, 2'과 'Just still1, 2', 'Flowing place2'의 아날로그적인 채색화와 'On the way'의 디지털 회화 방식을 통해, 대량생산과 소비에 포획된 도시에 자연물과 사물을 끌어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배치, 재구성하여 도시의 집을 탈환(奪還)하고 있다. '개인의 감정이나 기억, 새로운 의미가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빌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공존하는 공간에서 시간을 가시화하여 새 의미를 만들어간다.'

레이어 5는 <관계하는 집>이다. 사랑의 태도에 대해 관계로 바라보며 기록하고 회화, 영상설치로 작업하는 주미영 작가의 집의 볼륨은 태도와 관계된다. '그들을 위한 달리기' 영상과 미용실 간판 속에서 남자는 끊임없이 달린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달리기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그늘이자 휴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에게 반복적인 달리기는 집의 모양과 볼륨에 최적화하기 위한 사랑의 태도이다. 미소 작가는 공동의 재난 이후 사람의 거리와 소통의 방식,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변화를 인터뷰해 모으고, 수집된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회화작 'A New worldhood'와 텍스트 설치로 시각화한다.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라는 질문을 설문과 인터뷰로 수집하고 시각화하였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거리두기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가? 고전적인 듯하면서도 그만의 회화기법으로 완성되어가는 인물군상은 시간을 가로지르며 근원적 질문을 갈구한다. 장입규작가는 'Reconstruction' 연작을 통해 발견된 일상의 오브제들을 재구성하여 모순적이면서도 불가역적인 상황과 공간을 연출한다. 필연적 관계가 발생한 지점에서 시각적 지각을 환기한다. 오랫동안 유학하였던 독일에서 작가는 한 달에 한 번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날에 발견한 오브제 중 서로의 필연적 관계가 포착된 오브제들을 최소한의 가공으로 편집, 합성, 재복원한다. 사물이나 공간, 현상의 미묘한 부분을 뒤틀거나 절묘하게 변형하여 엉뚱하거나 모순적이며, 아이러니하고 낯선 상황을 의도한다. 이 충돌점이 관객에게 감각적 사유를 촉발한다.

이렇게 전환의 시대에 청년 작가들이 바라보고 상상하는 미래주택 공간에 대한 시각적이고 개념적인 관점의 재기발랄한 도전이 새로운 비전을 여는 희망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김미련 (기획)

Hi! A NEW HOME

김아름

김재은

김혜영

미 소

박미정

백다래

서승희

알렉산더루쓰 · 윤진초

유민혜

이은아

장입규

장하운

아하콜렉티브

주미영

홍수현

김아름
Ahreum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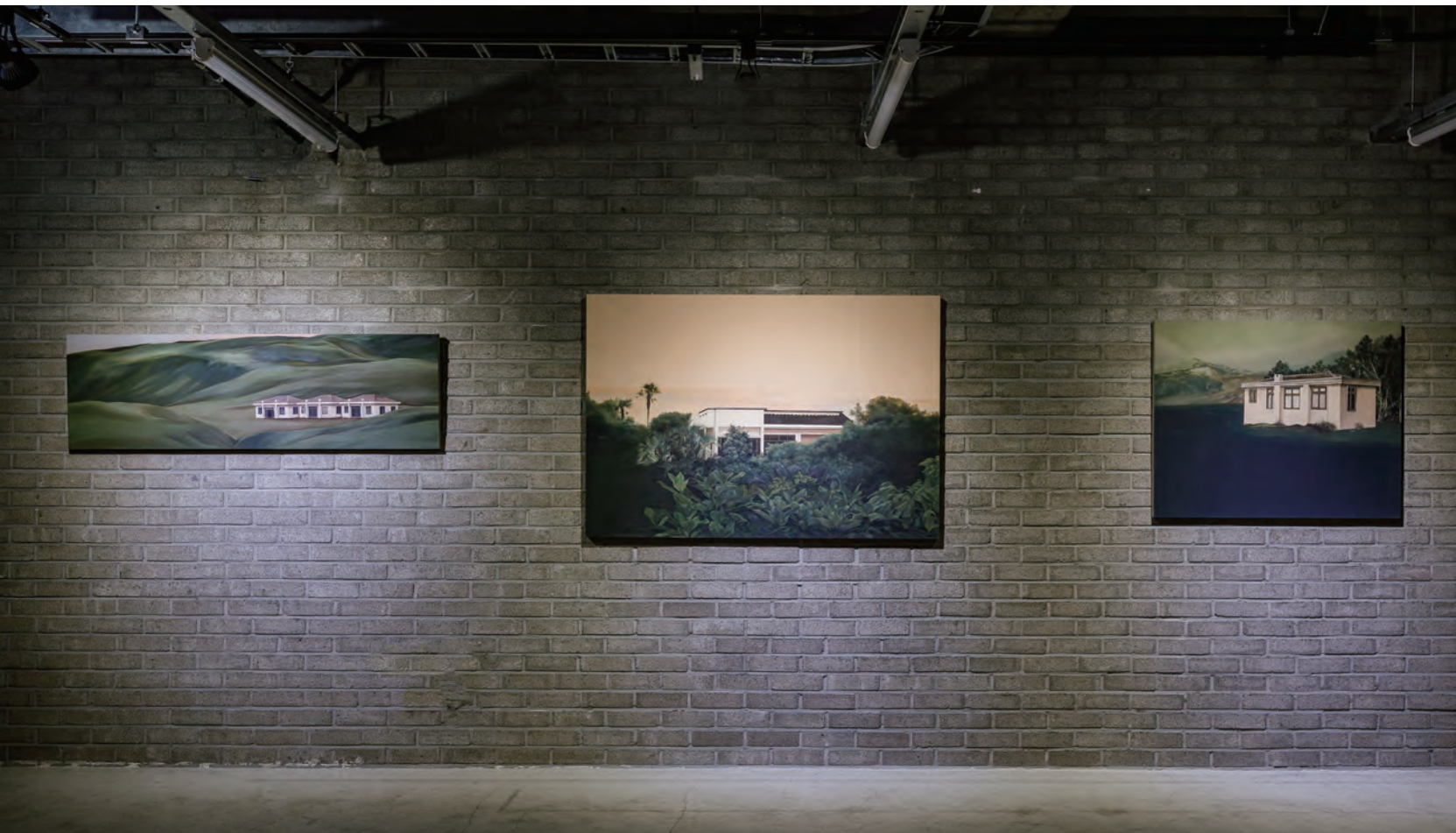
Just stil 1_Acrylic on canvas_53×45.5×2.5cm_2020
Just still 2_Acrylic on canvas_53×45.5×2.5cm_2021
Flowing place 2_Acrylic on canvas_116.8×91×3cm_2021
Come out1_Acrylic on canvas_59×59×3cm_2020
Come out2_Acrylic on canvas_59×59×3cm_2021

김재은
Jaeun Kim



대화의 문_mixed media on panel_가변설치_2021
House of Emotions_mixed media_가변설치_2021

김혜영
Hyeyeong Kim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_광목에 채색, 유화_138×43cm_2020
아무도 살지 않는 집_광목에 채색, 유화_130.3×89.4cm_2020
초록의 틈에서_광목에 채색_91×72.7cm_2020

미소 MISO



A New worldhood_ink on wood panel_488x244cm_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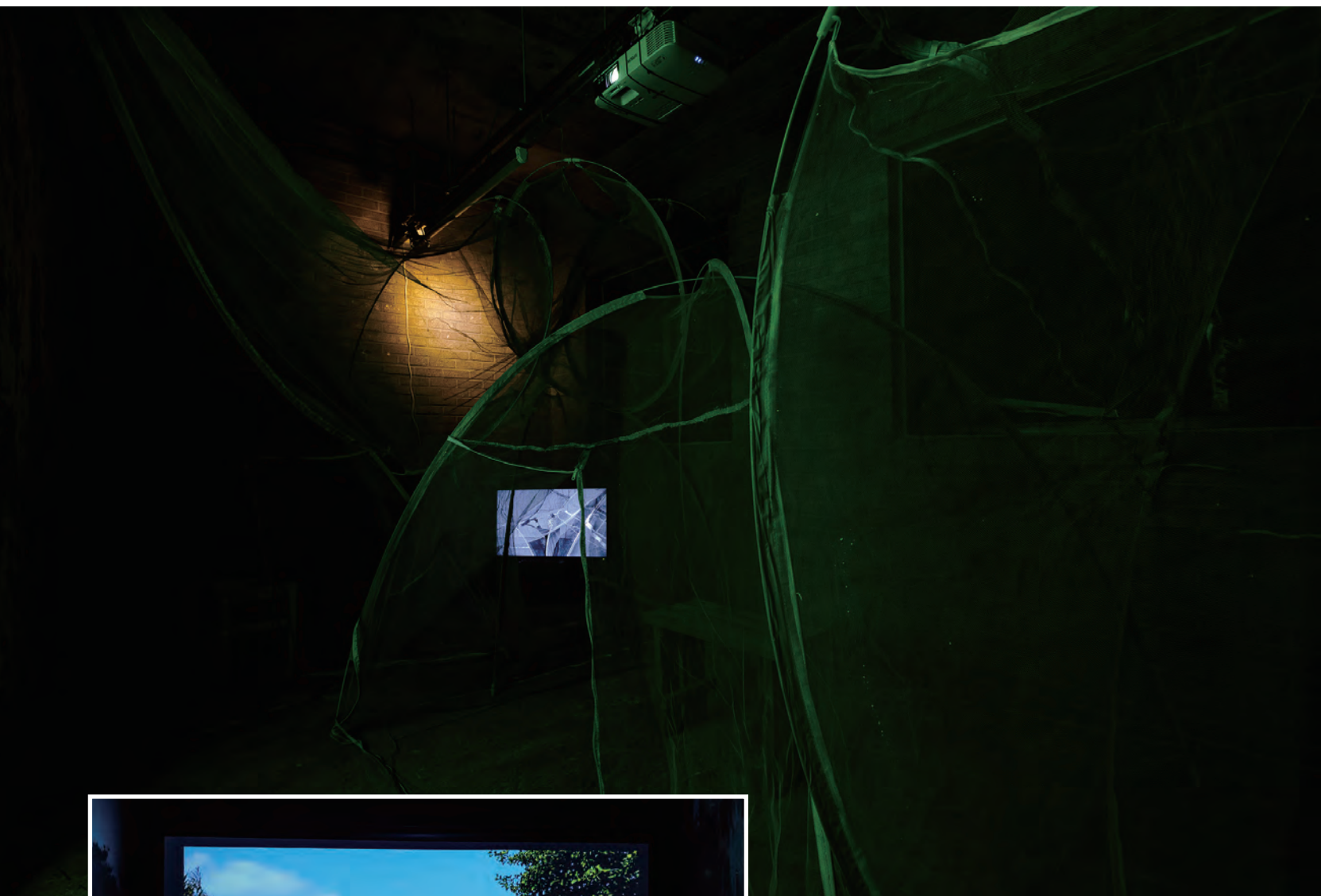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거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_Mixed media_Valuable dimensions_2020

박미정
Mijung Park



백다래

Darae B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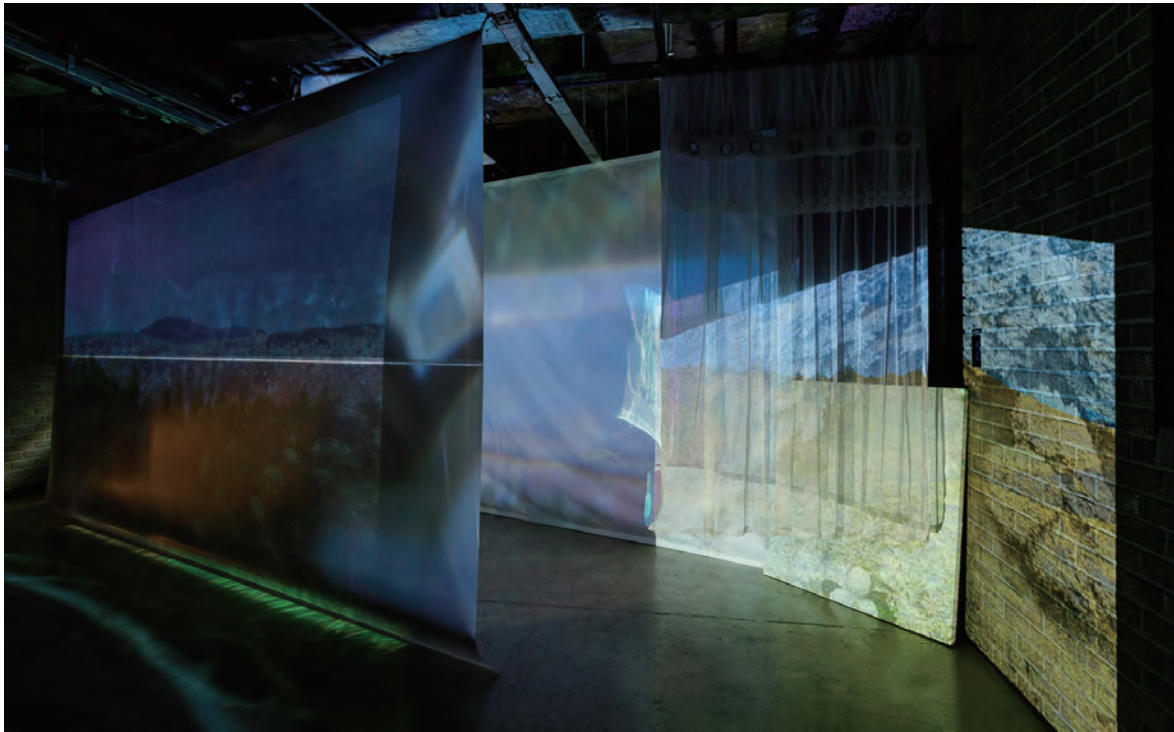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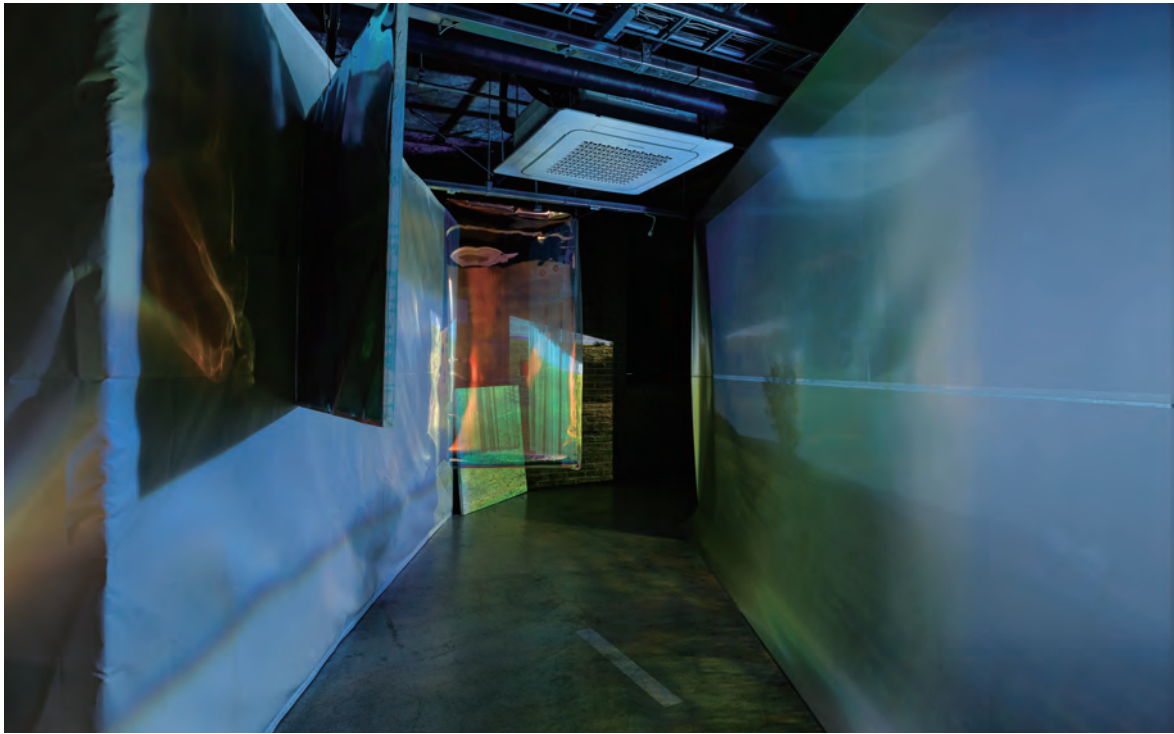
A STRANGER IN THE ROOM_모기장에 목탄, 페인트, FHD비디오, 9분 23초_2020
honestly; a foreign substance in nature_FHD 비디오, 5분 23초_2019

서승희
Seunghee Seo



아하콜렉티브 AHA Collective

정혜리 ~~김~~ ~~셋~~ ~~별~~ ~~하~~ ~~빠~~ ~~주~~ ~~애~~ ~~하~~ ~~빠~~ ~~지~~ ~~원~~



0m³_영상 인스톨레이션_4X5X5m(가변설치)_2021



물흐르는 분수 수석 사진 작게 추가

이은아
Euna Lee



스틸 컷 사진 한장 추가

알렉산더루쓰 · 윤진초
Alexander Ruth · Jincho Youn



장입규 Ipkyu Jang



- reconstruction#1_ 발견된 오브제들_81X82X1cm_2019
- reconstruction#2_ 발견된 오브제들_23X23X140cm_2019
- reconstruction#3_ 발견된 오브제들_57X30X57cm_2019
- reconstruction#4_ 발견된 오브제들_30X30X205cm_2019
- reconstruction#5_ 발견된 오브제들_36X36X218cm_2019

장하윤
Hayoon Jang



낮과 밤_Acrylic on canvas, 혼합재료_76x70x180cm_2021
낮과 밤_Acrylic on canvas, 혼합재료_66x60x150cm_2021
우연한 벽_Acrylic on canvas_119x79.5cm_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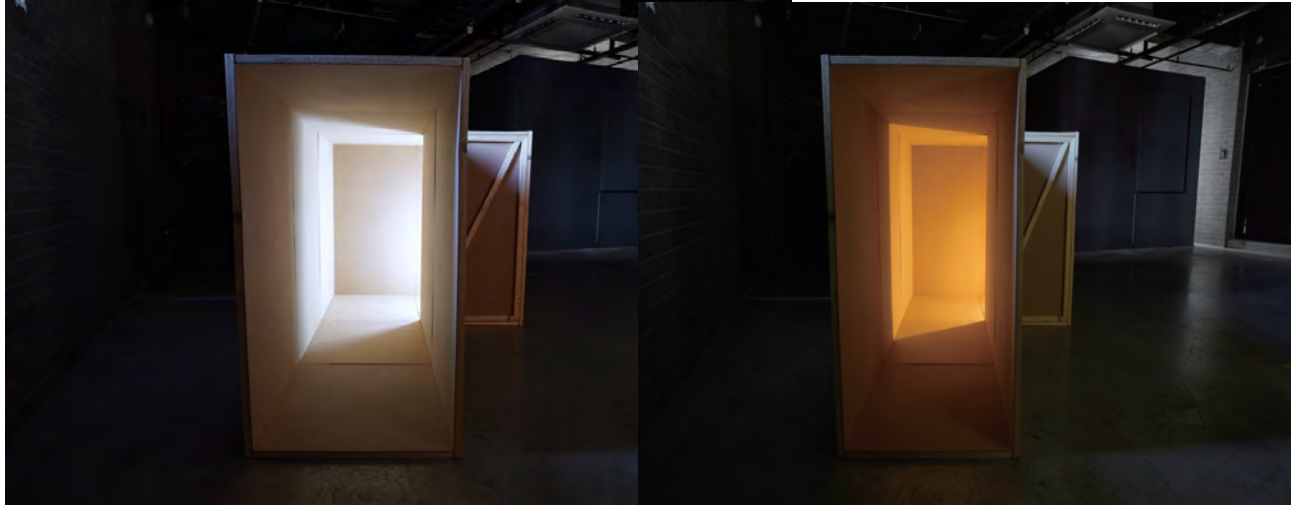
주미영

Miyoung Joo



그들을 위한 달리기_single channel video, 00:01:28_2019
모자를 쓴 남자_stee_23x6x8cm_2019
화가의 초상화_charcoal on paper_130.3x162.2cm_2019
모자를 쓴 남자_drawing on paper_56x38cm_2021

사진 추가



room with a view II_MDF, 각재, LED, LED컨트롤러, 컨트롤러 사운드, 스피커, 케이블_110X180X100cm_2021

Hi! A NEW HOME

Artist profile

김아름 Ahreum Kim

dkfma8280@nate.com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2019 HERE, NOW (울산문화예술회관 심, 울산)

2019 공간의 온도(H 갤러리, 울산) 그 외 4회

단체전

2020 ART ULSAN (특별전시장, 울산)

2020 아! 대한민국 미술인의 힘 전 (웅기아트센터 미술관, 경기)

2019 천나이 비엔날레 (LALIT KARAAKADEMI, 인도)그 외 55회

김재은 Jaeun Kim

qngus1850@gmail.com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2020 기억의 파노라마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부유하는 공간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9 또 다른 가능성 드로잉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9 Oceans Eleven (space129, 대구)

레지던시

2013 대구미술광장, 가창

김혜영 Hyeyeong Kim

mhaengm@naver.com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2020 아무도 살지 않는:Solitude of mind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2020 꿈: 소리없이 대화하는 (갤러리 도올, 서울)

2019 조용함을 듣는 것 (팔레 드 서울, 서울)

2018 시간과 기억은 빛과 바람타고 온다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2018-2019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예술가 레지던시 입주작가

미소 MISO

ksmal0303@gmail.com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2020 WORLDLESSNESS (어울아트센터, 대구)

2019 PATHOS: 전염과 전이 (수성아트피아, 대구)

단체전

2020 희망드로잉 프로젝트전 (대구미술관, 대구)

2019 Our Distance (금강미술관, 창원)

레지던시

2018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박미정 Mijung Park

alck6929@naver.com

숙명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 재학

단체전

2020 잠시 멈춤 展: 혐오를 보는 시선들. (ARTnoid 178, 서울)

2019 Humming Out of Tune (LUX Moving Image, 런던)

2019 Plastic Capsule (Four Corners Gallery, 런던)

2019 Art and Politics in Climate of Unrest 'What Is the Last Matter',
(Tate Modern, 런던)

2018 Being_Together_Is_Not_Enough (Bomb Factory, 런던)

백다래 Darae Baek

daraebaek@gmail.com

글래스고 스쿨 오브 아트 순수미술 석사 졸업

개인전

2020 'Language makes me an uncertain person'
(Alchemy Film & Art, , 하위 스코틀랜드)

단체전

2020 BLISTER CITY (UNIST, 울산)

2020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SeMA, 서울시립미술관 창고, 서울)

2020 Down the melting pot (대안공간루프, 서울)

레지던시

2020 장생포 아트스테이, 울산

서승희 Seunghee Seo

03140528@naver.com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단체전

2020 노마디즘 : 사유의 여정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9 대구권미술대학연합전 4년의 기록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Origin of Colors (Space129, 대구)

유민혜 Minhae Ryu

cocominhye@hanmail.net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박사과정 재학 중

개인전

2019 '모에 관하여, 네 번째' (타워마브루스 103, 부산)

2018 '모에 관하여, 세 번째' (스페이스 696-19, 서울)

단체전

2020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0_낯선 곳에 선'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20서울조각회' (김세중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8 화이트블럭미술관 (천안창작촌, 천안)

알렉산더 루쓰 Alexander Ruth

aliruth@naver.com

런던예술대학교 런던컬리지오브패션

-퍼포먼스를 위한 코스튬 디자인 전공 석사 졸업

2020 'MOTHER BEAR' (빌리웍스, 대구)

2019 'WHAT'S YOUR NAME' (빌리웍스, 대구)

2019 'THIS WAY'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8 'WHAT WAS' (갤러리중앙202, 대구)

윤진초 Jincho Youn

jinchoyoun@naver.com

캠브리지스쿨오브아트 앵글리아러스킨 대학교

-어린이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 석사 졸업

2020 수성빛예술제 '빛이 흐른다 예술이' (대구)

'MOTHER BEAR' (빌리웍스, 대구)

2019 불교 미술인협회 '붓다의 향기' (동덕갤러리, 서울)

2019 '뱀, 향아리, 불 그리고 여인' (이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8 'WHAT WAS' (갤러리중앙202, 대구)

2013 이야기가 담긴 도자기 이야기꽃출판사,

KCDF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스타상품 선정

이은아 Euna Lee

jesuiseunalee@gmail.com

스트라스부르그 국립장식미술학교 아트비디오과 석사 졸업

단체전

2020 '3m2' 24에스파스 보부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9 'UGC cine cite' 영화관 단편영화 상영 (스트라스부르그, 프랑스)

Camera silex patates germees (카지노 현대미술센터, 룩셈부르크시티, 룩셈부르크)

Collectif Fury (파리, 프랑스)

Shorts film festival du Offenburg (오펜부르크, 독일)

2018 Les martinets dorment en volant (크락 현대미술 센터, 일키히슈, 프랑스)

2016 JUN AI avec le collectif MU (파리, 프랑스)

장입규 Ipkyu Jang

ipkyu.jang@gmail.com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마이스터술러 (Prof. Marcel Odenbach)

개인전

2013 Resee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07 Happiness (Must Be Contemporary Art Center, 베이징, 중국)

단체전

2020 Festival Fuer Freunde (Hof Dansdorf, 포츠담, 독일)

2020 Bild ohne Bild (LortzingART gallery, 하노버, 독일)

수 상

2020 대상 수상, galerie Art Room주관 Art Award, 독일

장하윤 Hayoon Jang

saga0925@naver.com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0 우연한 벽 (갤러리봄, 대구) 외 7회(대구,일본)

단체전

2020 새로운 연대-희망릴레이 (대구미술관, 대구)

2019 웰컴홈, 미술관 속 집 이야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8 별빛, 달빛, 예술가의 시간-2인전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또 다른영역-드로잉으로 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아하콜렉티브 AHA Collective(정혜리)

ahacollective.info@gmail.com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석사 졸업

개인전

2019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서울)

2018 '의문의 K-' (아트스페이스 이색, 서울)

단체전

2020 '콘텐츠 임팩트' (콘텐츠 문화광장, 서울)

'웨스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웨스, 서울)

2019 '임팩트X' (콘텐츠 문화광장, 서울)

주미영 Miyoung Joo

miyoung2ga@naver.com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9 검은 밤의 무지개 (스페이스55, 서울)

레지던시

2019 W미술관 레지던시, 익산

2017 돌창고 프로젝트, 남해

2015 복합문화공간1377, 청주

수 상

2017 청주신인미술상, 청주미술협회

홍수현 Soohyun Hong

soohong21@googlemail.com

Kunstakademie Düsselodorf 디플롬 졸업

개인전

2019 'playunderground'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2019 'bad habit' (Vitrine im 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2018 'OPPOSITE' (아웃사이트, 서울)

단체전

2020 'PressHome to Unlock' (OS, 서울)

2021 수창청춘맨숀

Hi! A new Home

2021.1.15-4. 30 수창청춘맨숀

발행인 : 김향금

발행처 : 수창청춘맨숀

발행일 : 2021. 1

편집디자인 : 로커뮤니케이션

총감독 : 김향금

기 획 : 김미련

진 행 : 금상민, 김정임, 손영은, 정새별

 수창청춘맨숀
Suchang Youth Mansion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27 Tel. 수창청춘맨숀 053)252-2566~70
www.suchang.or.kr

 수창청춘맨숀
Suchang Youth Mansion

대구현대미술가협회



人大大同人 수창청춘맨션
Suchang Youth Mansion

41920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27 T.053)252-2566~70

대구현대미술가협회 / SPACE129

41959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14 T.053)422-1293